

‘밥 사주고 싶은 예쁜 동생들’

# 인천의 귀염둥이들을 소개합니다

팔미도 등대의 후손 등대리

점박이물범 삼형제 버미, 애이니, 꼬미

인천시 새 캐릭터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물범 친구들’



05 2018 MAY



COVER STORY  
Retro? Newtro!

매를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사진은 개항장 100년 된 건물에 새로 꾸민 화실에서, 고전적 작가.





아버지의  
젊음과  
맞바꾼 시간

1930년대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갯벌을 메운 자리가 거대한 공장지대가 됐다. 전국 노동자들이 꿈을 찾아 인천으로 왔다. 너도나도 가난했던 시절, 인천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생명 줄이었다.

옛 일진전기 인천 공장.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쉽 없이 돌아가던 이곳은, 지금 가동을 완전히 멈추었다. 사람이 모두 떠나고 기계 소리가 사라진 신산한 공업단지. 하지만 이 안엔 평생 치열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젊음이 녹아 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공장 노동자의 삶도 마다하지 않던 아버지. 그의 꿈은 작고 소박했다. 있는 힘을 다해 일하고, 자식들 잘 가르치고 잘 키우는 것. 이 ‘큰’ 세상을 움직이는 그 ‘작은’ 소망이, 지금이라도 거대한 쫓덩이를 덜컹덜컹 움직일 것만 같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굿모닝  
인천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5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 팀장) — 기획·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CONTENTS

- 04 인천미소 나의 새로운 친구 ‘굿모닝인천’ 外
- 06 푸른 인천 인천 녹색 종주길
- 10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⑤ 고진오 화실
- 14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② 인천 원도심의 재생 방향
- 18 특집 오월은 우리들의 세상 원도심의 아이들
- 24 인천 VS 세계 도시 ⑤ 청라국제도시 VS 샌안토니오
- 28 all\_location\_incheon 드라마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제작·로케이션 지원
- 32 강화 방문의 해 타시거 버스
- 38 얼굴 좀, 봅시다 유물 속 인천의 풍경을 디자인합니다 조유미
- 40 문화 캘린더 부평키즈페스티벌 기획공연 ‘봉장취’ 外
- 44 시정 뉴스 원도심 빈 교실에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外
- 50 컬러링 인천 영종 씨사이드파크
- 52 Info Box 인천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外
- 57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가치를 만들다 프라이탁FREITAG
- 58 모닝 커피 한잔 “너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 59 인천 사는 나무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굿모닝인천’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 인천미소

‘미’디어 ‘소’식통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 나의 새로운 친구 ‘굿모닝인천’

독자 박선희 경기도 파주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여덟살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초록이’들이  
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베란다에 걸터앉아 아침햇살을 즐깁니다. 천천히  
차 한 모금 마시며 제게는 ‘친구의 친구’나 다름없는 ‘굿모닝인천’을  
들춰봅니다.

왜 친구의 친구냐고요? 남편 직장 때문에 송도국제도시에 살게 된 고  
등학교 친구가 제게 ‘굿모닝인천’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연고 없  
는 그곳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게 바로 ‘굿모닝인천’이라면서 ‘너  
도 알고 지내면 좋겠다’며 잡지를 부쳐줍니다. 친구 말로는, 매달 2권을 쟁  
겨 그중 1권을 서류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가면 웬지 학창시절 여고생  
이 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친구 덕분에 제게 인천에 친구가 사는 도  
시 이상으로 마음이 갑니다.

지난해 이맘때 그 ‘마음 가는’ 인천으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영화 ‘뷰  
티인사이드’ 촬영지로 유명한 카페 발로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지요.

마침 올해 ‘굿모닝인천’이 새롭게 재생한 인천의 오래된 공간을 시리즈로  
소개해줘서 관심 있게 읽고 있습니다. 3월호에 소개된, 호텔도 게스트  
하우스도 아닌, ‘여관’이란 간판을 달고 있는 ‘인천여관+루비살롱’, 4월  
호의 ‘나무 한그루가 숨 쉬고 있었다’는 잇다스페이스가 기억에 남습  
니다. 꼭 가서 그 공간의 특별한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잇다스페이  
스의 그 나무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5월이 되면 친구가 ‘굿모닝인천’ 5월호를 보내주겠지요. 이번 호에는  
어떤 소식이 실렸을까요? 나의 새로운 친구를 만날 그날을 두근두근  
기다려봅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 수도 그 이상의 도시, 인천

매달 ‘애인(愛仁)’의 편지를 기다리듯 설레는 마음으로 ‘굿모닝인천’이 오길 기다립니다. 책을 집어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인천은 정말 살기 좋고 정겨운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이 서울 버금가는 2대 도시가 되길 꿈꾸며, 서인부대 파이팅!

- 신창균 연수구 선학로

### 인천의 밝은 미래 읽기

‘굿모닝인천’을 보면서 인천에서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많이 알게 되어 좋습니다. 또 일자리 정책 등 시민에게 필  
요한 정보를 소개해주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파이팅  
인천! 언제나 응원합니다.

- 박기숙 서구 중봉대로

### 감동 인천

‘굿모닝인천’을 보면서 인천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인천의 보석 같은, 숨은 명소들을  
찾는 즐거움도 느꼈고요. 특히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보면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에 감동했습니다. 구도심 골목의 옛 모습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했지요. 감사  
합니다.

- 황안젤라 서구 청라라임로

### 국제도시에서 함께 어울리기

‘굿모닝인천’이 시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와 가볼 만한 곳을 폭넓게 소개해 주어 도움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행사나 공연 등을 자주 다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천에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나 다문화가정과 어울릴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권혜란 연수구 먼우금로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 ‘굿모닝인천’ 1년 모으면 ‘올웨이즈 인천!’

‘굿모닝인천’을 올 한 해 매달 모아 차곡차곡 쌓으면,  
인천시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이 완성됩니다.  
‘굿모닝인천’ 2018년 컬렉터에 도전해보세요!





## 인천 종주길에서 푸르름을 누리다

연둣빛 새싹이 햇살에 흠뻑 젖어 싱그럽다. 성큼 다가온 봄기운에 마음이 설레지만, 봄이 훌쩍 떠나가 버릴 것만 같아 조바심도 난다. 봄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곳, 설렘과 조바심을 한꺼번에 날려주는 곳, 산으로 가보자. 인천에는 계양산에서 시작해 도심을 가로질러 봉재산으로 이어지는 S자 녹지축 ‘인천 녹색 종주길’이 있다. 그 길 위에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자. 신선처럼 유유자적 도시의 푸르름 속으로 풍덩 몸을 던져보자.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 도심을 가로지르는 푸른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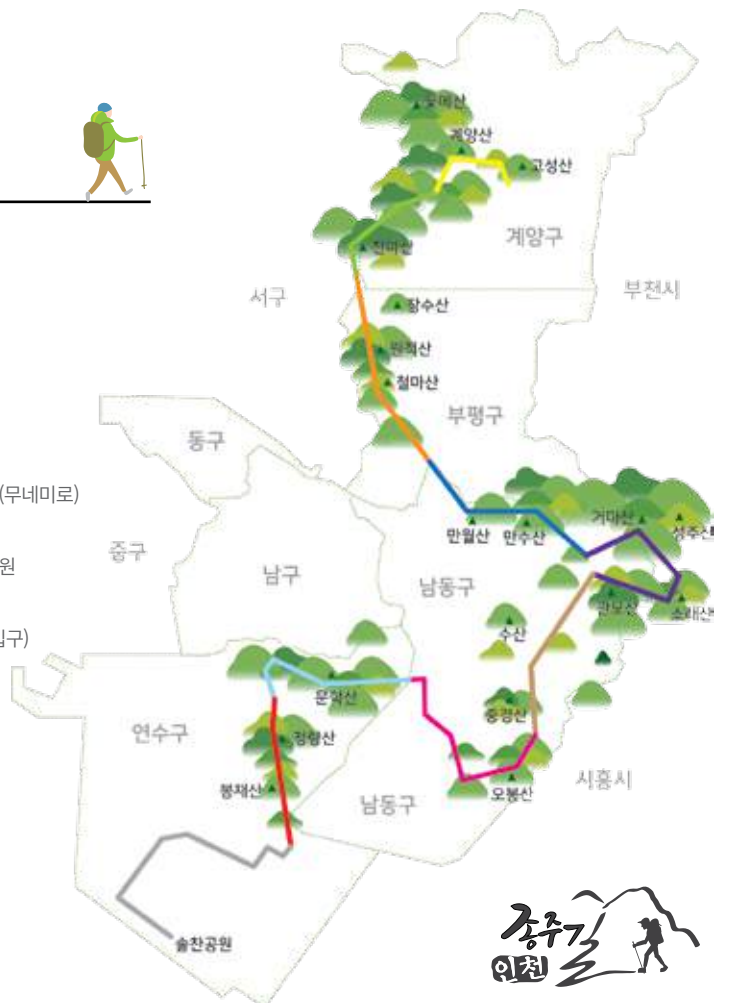
인천은 계양산을 시작으로 천마산, 원적산, 함봉산, 만월산, 만수산, 거마산, 소래산까지의 한남정맥 한줄기와 상아산, 관모산, 오봉산,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도심을 따라 52km에 이르는 S자 녹지축은 다시 송도 달빛공원과 해돋이공원, 센트럴파크, 32호공원, 솔찬공원 앞바다까지의 길을 만나 ‘인천 녹색 종주길’을 완성한다. 굽이굽이 녹색길과 송도국제도시의 멋스러운 해안을 끼안고 있는 ‘인천 녹색 종주길’은 회색빛 도시에 맑고 푸른 기운을 선사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도심과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 인천은 그런 축복을 받은 도시다. 하지만, 종주길 일부 구간은 공업화, 현대화를 거치면서 단절의 아픔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생태통로, 연결육교 조성 등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10일부터 15개의 산, 2개 하천, 8개 공원으로 이뤄진 총 60km에 걸친 10개의 ‘인천 녹색 종주길’을 탐방하며 코스를 점검해왔다. 시는 5월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탐방행사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와 쾌적한 숲길 조성, 산지정화, 산불방지, 디자인 통합 안내 시설 설치, 휴게시설 보강, 탐사 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 [인천 녹색 종주길 코스]

- 1 코스 (2.7km) 2시간 연무정~계양산~경명대로(징매이생태통로)
- 2 코스 (4.5km) 3시간 경명대로~256기봉~천마산~서인천IC
- 3 코스 (7.1km) 4.5시간 서인천IC~원적산~구루지고개~백운공원~백운역
- 4 코스 (6.0km) 3시간 백운역~십정공원~부평삼거리역~만월산~수현부락(무네미로)
- 5 코스 (8.4km) 4시간 수현부락~거마산~소래산~관모산~인천대공원습지원
- 6 코스 (5.2km) 2시간 인천대공원습지원~장수천~영동고속도로(오봉산 입구)
- 7 코스 (7.0km) 3.5시간 영동고속도로 입구~오봉산~듬배산~남동공단~승기천~선학경기장
- 8 코스 (5.5km) 2.5시간 선학경기장~문학산~노적봉~송도역
- 9 코스 (5.1km) 2.5시간 송도역~청량산~봉재산~해안도로(달빛공원 입구)
- 10 코스 (8.5km) 3시간 해안도로~해돋이공원~센트럴공원~트라이볼~인천대교전망대~아트센터~솔찬공원



인천 녹색 종주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 공원 같은 산자락 종주길 5코스

봄기운이 유난히 그림던 4월. 인천대공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거마·소래·상아·관모산으로 이어지는 ‘인천 녹색 종주길’ 5번째 노선을 답사하는 날이다. 거마산의 시작은 아트막하고 가파르지 않아 가볍게 산책하는 기분이다. 꽃샘추위와 미세먼지로 산행하기에 그리 좋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숨기를 한껏 머금은 흙냄새, 재잘거리는 새소리, 촉촉한 공기가 주는 부드러운 느낌은 주말 아침 꿀잠을 포기한 대가로 충분했다. 봄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해발 210m 거마산 정상에 도착했다. 군부대 철책으로 둘러싸인 정상은 어딘지 쓸쓸하다. 아쉽지만 발걸음을 돌려 소래산으로 향한다. “지난해까지 종주길 정비는 물론, 통합 안내판 설치작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70억 원을 들여 등산로·숲길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의 산에는 군부대, 철책 등이 많아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해 종주길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매주 종주길 탐방에 나서는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늘 선두에 서서 종주길 곳곳을 살핀다.

거마산에 이어 도착한 소래산 정상에 서자 계양산에서 시작된 인천의 S자 종주 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회색빛 도심이 푸른 산자락 덕분에 숨길이 트인 모습이다. 소래산에 이어 오른 상아산과 관모산. 이곳에서는 인천대

**TIP** |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해 네 군데 산을 차례로 지나가는 인천종주길 5코스. 산길만 걷는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대부분 중턱 오솔길을 통과하므로 편안하게 숲길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인천대공원에서 관모산까지만 둘러봐도 근사한 주말 가족여행이 된다.

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호수와 잘 가꿔진 숲길이 눈을 정화해준다. 하산 길에 문득, 뽀뽀하고 푸른 기운이 다가온다. 잣나무 숲이다. 눈앞에 펼쳐진 초록빛 청아함에 마음이 한결 깨끗해지는 기분이다. 도롱뇽 알을 품고 있는 연못에서 자연의 신비를 느끼면서, 장애인을 위한 등산로인 ‘무장애 나눔길’을 따라 하산하는 발걸음은 더욱 가볍다. 기분 좋은 도심 속의 나들이, 길에 피어있던 봄빛에 하루가 흠뻑 물들었다.



### 종주길 완주하고 인증 받으세요!



‘인천 녹색 종주길’ 전 구간을 완주한 시민에게는 완주 인증서가 발급된다. 우리 시는 업무협약을 맺은 트레킹·등산 모바일 앱 ‘트랜글’에서 전 코스 완주 인증을 받은 시민에게 완주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어플리케이션 ‘트랜글’을 시작해 인천 녹색 종주길 수첩에서 ‘따라가기’를 누르면 종주길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등산로 주요 갈림길에서는 방향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코스별로 거리와 시간 등 인천 녹색 종주길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인천 종주길 담당자의 탐방노트 엿보기

#### 3월 24일

인천 종주길 3회차 4구간 답사. 이 구간은 인천에서 도롱뇽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도롱뇽 마을이 포함되어 있어 도롱뇽이 알을 낳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도롱뇽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모아야겠다.

#### 4월 7일

“또 가냐~?” “또 간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시작된 종주길. 계양산에서 시작되는 인천 종주길 중에서 한남정맥과 겹치는 구간은 5코스에서 끝난다. 길을 걷는 동안 미세먼지에 마음대로 깊은 숨을 들이쉬지 못했던 것보다 ‘참나무 시들음병’으로 인해 무참하게 잘려 나가는 참나무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더 안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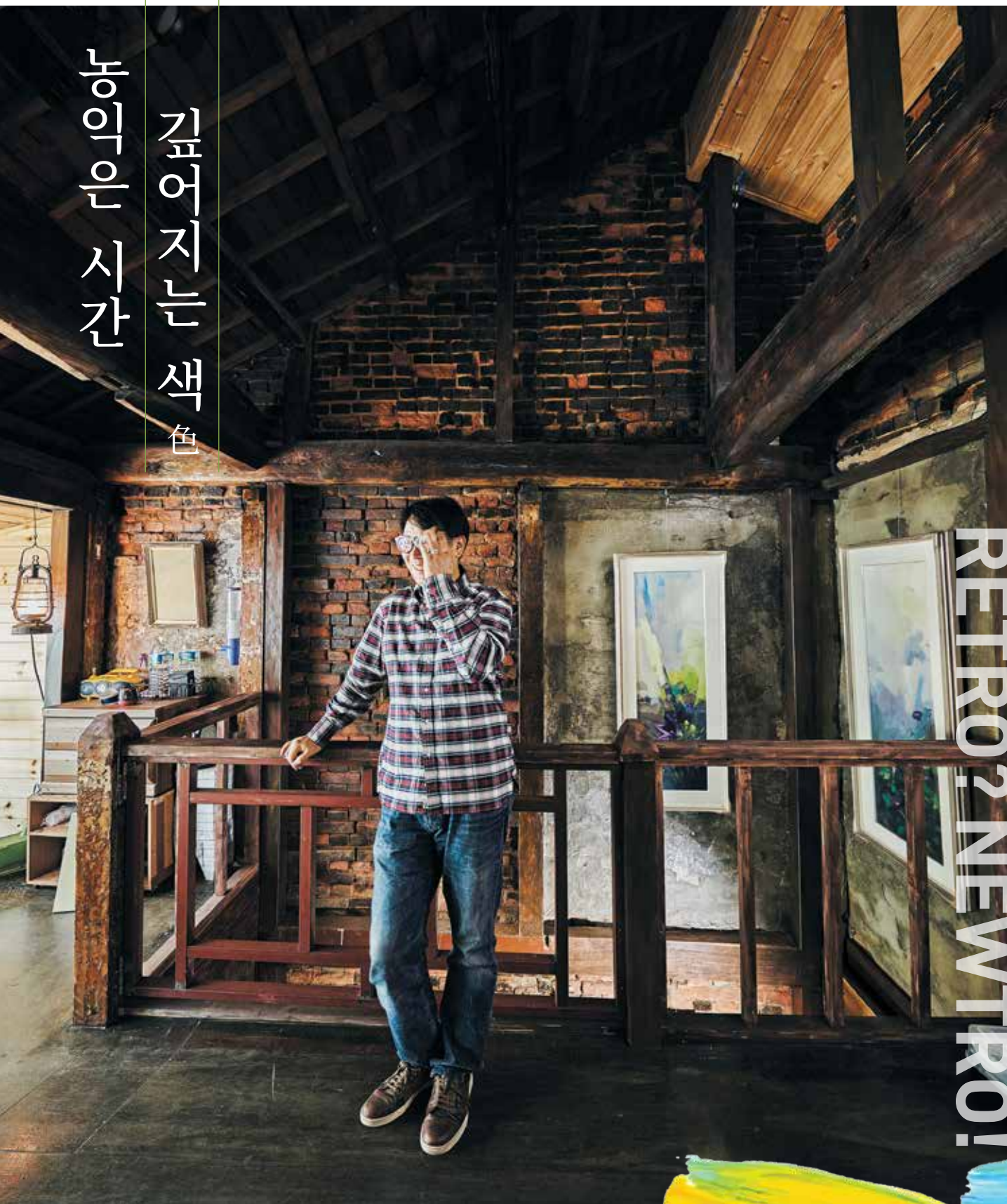
#### 4월 14일

“비 오는데, 또 가냐?” “그래도 또 간다. 인천 종주길!” 새벽부터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 얇은 비닐 우의 한 장을 걸치고 빗속을 걸었다. 개나리, 왕벚나무가 어우러진 장수천, 신록이 돌아 나오는 오봉산과 뽕배산을 걸으며 비에 젖은 진달래와 고고한 자태로 피어난 산벚나무 덕에 힘겹기보다 힐링이 가득했다.





# 농익은 시간 깊어지는 색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그 다섯 번째로 개항장 100년 된 건물에서 새 숨을 틔운 고진오 작가의 화실을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100년 된 일본식 목조 주택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 숨을 틔웠다. 본연의 모습을 살려둔 채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 이어졌다.

## 잃어버린 시간을 찾다

중구 관동 일대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은 일본식 목조 주택들이 시간을 거스르며 무심히 서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월의 덧옷을 입고 변한 모습에 옛 가옥인줄 모르고 스쳐 지나곤 한다. 그 거리에 창 너머 풍경이 자못 궁금해지는 건물 하나가 생겨났다. 서양화가인 고진오(56) 작가의 작업실이자 '갤러리지오(GO)'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전시공간이다.

시간이 흐르고 옛 건축물은 동네에서 흔히 보는 낡은 다세대주택이 되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애정 어린 손길이 닿으면서 문화예술이 꽃처럼 피어났다. 뭉게뭉게 쌓인 세월이 자그마치 100년이다. 색을 겹겹이 입힌 나무 기둥, 콘크리트 안에 감춰진 울퉁불퉁한 흙벽을 쓰다듬으며 그 시간을 가늠해 본다. 한 지붕 아래 다섯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살던 집. 고만고만한 형편이었지만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자식들 키우고 살림을 불리며 희망을 키웠으리라. 작가는 버려진 공간에 남겨진 삶의 자취를 소중히 그려모았다. “이 공간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의 사연을 그냥 묻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때 묻은 벽면과 기둥, 빛바랜 목조 장식 등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 두었습니다. 누군가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백기흠 어르신



아름다움을 쫓는 작가의 손



작품에 둘러싸인 고진오 작가.  
그는 오는 8월 30일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열리는  
‘20회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수채화처럼 삶을 물들이다

망치질을 거듭할수록 시간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평범했던 건물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자 집주인도 ‘이렇게 멋스럽고 고풍스러운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올린 게 아니다. 추억을 짓고 기억을 세웠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가다듬고 어루만지며 작품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원형 그대로를 남겨둔 채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정성스레 새 숨을 불어넣은 후엔, 작가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공간으로 열어두었다. 정오가 되자 붓과 물감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화실로 모여든다. 백기흠(78) 어르신은 캔버스를 물들이며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고 있다. “내 어릴 적 학교에 다닐 때, 그림 대회 나가면 전교 1등도 하고 그랬어.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잊고 살았지. 선생님 만나면서 다시 그림 그리고 전시도 하니, 여한이 없어.” 박인미(63) 씨는 작품에 반해 고 작가와 인연을 맺었다. “풍경을 그리기에서 인천에 선생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표현력이 뛰어나고 색감도 풍부하지요.” 그림이 좋았지만 외모에 반한 건 아니냐고, 작가가 농을 던지니 ‘노코멘트’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미소를 보낸다. 함께한 세월이 10여 년이다. 이젠 제자라기보다 가까운 친구 사이 같다.



10년 넘게 함께한 작가와 제자.  
이젠 가까운 친구 사이 같다.

건물 옥상에 오르면,  
‘인천’이라는 거대한 작품이 펼쳐진다.



예술, 일상에 스며들다

이 일대의 나이 든 주민 대부분은 부둣가 공장지대에서 땀 흘리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저 열심히 일할 줄만 알았던 우리 아버지들에게 예술은 사치일 뿐이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작품을 갤러리 밖에 전시해 놓은 것도, 평범한 사람 누구나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그의 따듯한 배려다. “여기가 뭐하는 데냐고 동네 주민께서 불쑥 들어오곤 하세요. 그럼 참 반가워요. 아직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서 그림 보고 차 한잔 하고 가시면 돼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4년 전, 작가가 개항장에 문을 연 ‘갤러리지오(GO)’는 지금껏 단 하루도 전시를 쉬 적이 없다.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작가와 대중의 거리를 좁히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화창한 오월, 커피 한잔 들고 개항장 거리에서 예술과 일상 사이를 거닐어 보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 information

**고진오 화실 & 갤러리**  
제물량로206번길 36-1  
☎ 010-3783-5922





인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요건:

## 산업—커뮤니티—장소의 재생을 통한 도시 만들기

글 최강림 경성대학교 건축디자인학부 교수(전 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사진 최강림 교수, 류창현 포토디렉터, 셔터스톡



지금은 쇠퇴했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사는 터전이었던, 그곳을 다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이 시대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사례가 소개되고,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소개되고 있는 ‘미국 시애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 원도심 재생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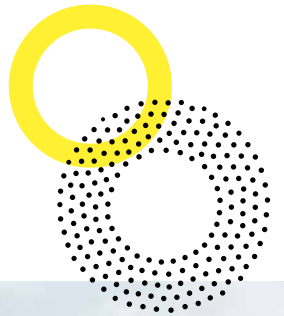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시애틀은 인구(광역도시권 약 350만 명), 입지 여건(공항 및 항만)뿐 아니라, 과거 대표적 산업도시였다가 현재 기업 유치 및 산업 재생에 주력하는 점에서 인천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도시다(그래서인지 도시역사박물관의 이름이 ‘역사·산업박물관 Museum of History & Industry’이다). ‘연구년’을 인연으로 지난 1년간 이 도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왼쪽부터 스타벅스 시애틀 본사,  
구글 캠퍼스 내 건물, 아마존 신축 본사 건물,  
역사·산업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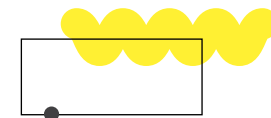
### 미국 시애틀의 도시재생

미국에서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보다 도시재활성화(Urban revitalization)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게 쓰이고, 시애틀에서도 도시재활성화가 통용되고 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시애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도심의 노후산업지역을 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즉, 산업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다.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South Lake Union)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존(Amazon) 등 여러 첨단산업기업이, 프리먼트(Fremont)의 수변에는 구글(Google) 캠퍼스가, 소도(Sodo) 지역의 오래된 건물에는 스타벅스(Starbucks) 본사가, 시애틀 인근 레드먼드(Redmond)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본사가 들어와 있다. 이러한 첨단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었고, 이를 통한 수익을 공공 공간과 환경 조성에 투자하고 있다.



도시재활성화



시애틀에는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한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 도시구조와 조직이 보전되고 있으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조물의 원형 보전 및 부분 보전 등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존 건물의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과 더불어 신축을 통한 도시재생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구역 단위와 건물 단위의 도시재생이 동시에 실시되기도 한다.

시애틀 시장국은 산업재생을 통한 재원을 공공 공간 및 환경에 투자하는 등 도시마케팅 기법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즉, 도시재생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심의 중앙수변공간(Central Waterfront)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고가도로의 철거 및 고속도로 지하화로 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해 모든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시민·전문가·민간·공공으로 구성된 수변공간친구들(Friends of Waterfront Seattle)이라는 조직이다.



##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및 도시재생의 과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서, 시애틀의 도시재생은 공공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민간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이때 공공은 민간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도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은 시애틀 도시디자인 지침(Seattle Design Guideline), 사우스 레이크 디자인 지침(South Lake Union Design Guideline) 등 공익을 위한 계획 및 디자인 지침을 제시한다. 중앙수변공간과 같은 공공 공간 조성에서는 공공이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은 공공이 제시하는 개발 및 디자인 지침 등을 준수해 단위개발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 공공이 주관하는 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후 공공이 결정한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시애틀에는 도시재생의 성공과 더불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내 최고의 인구 유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실직자 및 노숙자가 늘어났다. 또한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거지역의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 커뮤니티 가든(Urban Community Garden)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토지(Patch)는 공공이 제공하고 운영은 주민조직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



수변공간친구들 사무실과 야외 전시물

## 인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요건

시애틀의 도시재생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인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요건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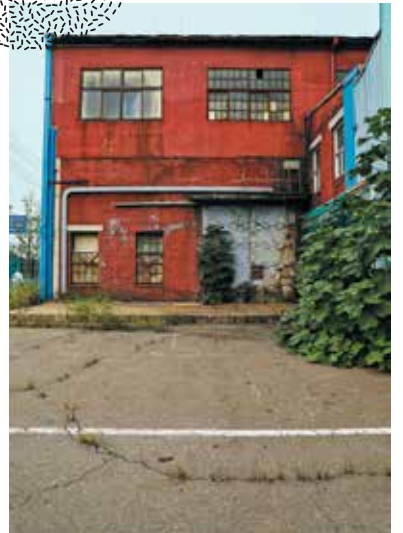
- 첫째** ————— **산업재생을 통한 원도심 재생**으로, 기업 및 투자를 경제자유구역 외의 원도심 지역에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애틀의 경우 아마존 본사, 스타벅스 본사, 구글 캠퍼스 등은 새로 조성된 신도심 지역이 아니라 사우스레이크 유니언, 소도 등과 같이 쇠퇴했던 원도심 지역에 터를 잡고 있다.
- 둘째** ————— **커뮤니티 재생을 통한 원도심 재생**으로, 주거지 재생으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해 주민이 정을 붙이고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
- 셋째** ————— **장소 재생을 통한 원도심 재생**으로, 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장소 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이 긍지와 애착을 갖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내항과 개항장 같은 인천의 도심수변공간과 원도심을 연계해 모든 시민이 사랑하는 장소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도시구조와 조직을 유지하고, 오래된 건물의 보전을 고려한 재활용 및 리모델링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손으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도심 재생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변공간친구들처럼 시민·전문가·민간·공공이 함께하는 조직이 주체가 되어 원도심 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공공은 원도심 재생을 위한 관련 제도와 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계획, 디자인 지침의 작성, 사업비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원도심 재생에 임할 때는 도시재생의 원칙수립과 다양한 스펙트럼의 수용 등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즉, 획일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존 환경의 여건에 따라야 한다. 규모에서는 개별 건물 차원에서 구역 차원까지, 성격에서는 신축은 물론 기존 건물의 재활용 및 리모델링까지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산물은 인천의 고유한 자산이다.



옛 일진전기 인천 공장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을 처음 논의한 도시 중의 하나다. ‘2005년 지역균형발전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2016년에 ‘2025년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신도심과 기존의 도시지역인 원도심의 재생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 그 성과는 만족스럽다고 하기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는 유기체인 동시에 다양한 생명체가 삶을 영위하는 생태계다. 생명현상이 그렇듯 도시도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방식에 따라 이를 담아내는 도시도 변화를 겪게 마련이다. 우리의 삶을 담은 그릇인 도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건설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생명체와 사물의 재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듯, 도시재생도 한 번의 사업으로 완료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창영동 2016

## 아이들이 있어야 '골목'이다

사진·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좁은 골목, 굽은 골목, 가파른 골목은 문제 될 게 없었다.  
아이들은 골목의 생김새와 환경에 맞는 '창의적' 놀이를 개발해서 놀았다.  
하나가 아닌 여럿을 엮어주는 고리는 바로 놀이였다. 자치기, 팔방치기, 구슬치기,  
비석치기, 땅따먹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소꿉장난...  
돌멩이 하나, 작대기 하나만 있어도 종일 지겹지 않게 놀았다.



신정동 2012



신흥동 2010



청영동 2013

특히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이 몸 하나로 노는 말뚝박기는 지금의 부모 시선으로 본다면 기겁할 놀이였다. 일명 '말타기'인 이 놀이는 말처럼 허리를 길게 굽힌 아이들 등 위로 상대방 아이들이 달려와 힘차게 구르고 올라탄다.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등을 내준 아이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척추측만증이나 디스크 걸리지 않는 게 정말 '기적'이었다.  
비가 온다고 골목이 비어 있진 않았다. 여름날 흙탕물 튀기기 놀이는 '색다른' 놀거리였다. 머리 좀 큰 형들은 위장 구멍이를 파서 퇴근길 동네 누이들의 발을 빠뜨리고 달아났다. 눈 오는 골목 길은 포대와 비닐 장판이 등장하는 눈썰매장이 되었고 집집마다 치운 눈을 한데 모아 이글루를 만들어 에스키모 놀이를 했다. 정월 대보름 밤에는 불을 담은 깡통들이 춤을 추었다. 화력 좋기로는 '루핑'이 최고였기 때문에 며칠간 루핑 지붕을 한 집주인들은 애간장이 탔다. 이즈음을 사는 어린이들에겐 그러한 풍경은 동화책 속의 한 장면일 뿐이다.



“○○야, 노을자.” 어느 집 앞의 이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다.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들이 몰려 나왔다. 58년 개띠들이 골목을 차지했을 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네댓 명 이상 있었다. 게다가 세 든 집 아이들까지 하면 손바닥만 한 집마당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밖으로 쫓아내기 일쑤였다. 골목은 바로 왁자지껄 놀이동산이 되었다.



송림동 2016



신흥동 2009



송림동 2006



간석동 2008



송의동 2009



만석동 2010



골목 놀이가 심심해지면 멀리 원정을 갔다. 부닷가에 가서 물수제비를 뜨거나 고깃배용 얼음을 주워 먹기도 했다. 염전은 훌륭한 노천 풀장이었다. 퇴약별에 까맣게 그을린 벌거숭이 몸이 하얀 소금기 범벅이 되도록 자맥질을 했다. 매년 목재 회사 저목장과 염전에서 몇 명씩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들의 발길을 가두진 못했다.  
“○○야, 밥 먹어라.” 누구네 엄마의 외침은 하루 놀이를 종치는 외침이었다.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골목길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골목은 ‘학교’였다. 생애 최초의 교육장이었다. 동네 형들과 어울리면서 질서, 협동, 그리고 양보 등을 배웠다. 다투고 놀면서 ‘스스로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체득했다. 그들의 무대에는 나 외에도 항상 누군가가 함께 등장했다. 골목에서는 모두가 주연이며, 모두가 조연이었다. 친구와 우정을 쌓고 동네 형들과 위계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뭉치면 살고 더 뭉치면 신난다는 ‘개똥철학’도 알게 되었다.

이제 아이들을 골목에서 볼 수 없다. 골목도 없고 아이들도 없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염려한 엄마들은 아이들을 집 안이나 학원에 가두려고 한다. 좁은 골목길은 아이 대신에 자동차가 차지했다. 얼마나 밖에서 놀지 않으면 ‘골목에서 놀자’라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등장할 정도다. 골목이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노을자’라는 말은 이제 사어(死語)가 되었다.



도원동 2010

신흥동 2006

만석동 2006

만석동 2010

송현동 2007

용현동 2008





청라호수공원

## 물길 따라 유유히 푸른 보석의 수변도시

청라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 그렇듯 매립지에 조성된 대표적인 수변도시다. 매립되기 전의 푸른 숲이 보석 같았던 청라섬(靑蘿島)을 잊지 않기 위해 청라라는 이름과 푸른 보석을 형상화한 시티타워를 건립 중이다. 청라 커널웨이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리틀 베네치아’ 샌안토니오 리버워크가 부럽지 않다.

글 이재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팀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셔터스톡



리버워크

### 청라의 중요 경관자원 커널웨이

청라국제도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해안도시로 계획인구 9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8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업무지구와 첨단산업지구가 조성되면 서울에서 30분 거리의 첨단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커널웨이는 청라국제도시의 중요 경관자원 중 하나다. 청라의 중요 경관자원을 꼽자면, 커널웨이라 불리는 3.6km의 주운수로와 청라의 중심에서 독보적인 경관거점 역할을 하는 호수공원, 그리고 시티타워(2022년 완공 예정)이다. 커널웨이는 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을 가로질러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호수공원으로 모여든다. 이 수로는 상업지구의 분주한 삶에 휴식과 여유를 안겨주는 공간으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적당한 스케일의 수로 폭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편해 친근감을 더한다. 청라 커널웨이는 이미 많은 카누 동호회원들이 레포츠를 즐기는 생활레저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어 인공적인 운하를 도시에 끌어들이 성공한 사례가 되고 있다.



청라 커널웨이는 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을 가로질러 도시의 허파, 호수공원으로 모여든다(위). 상습적인 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리버워크는 이제 그 기능이 확대돼 도시의 관광문화자원으로 자리 잡았다(아래).





## CHEONGNA INT'L CITY

### 청라 커널웨이

위치	청라국제도시 내
규모	수로폭 5~10m, 수로연장 총 4.5km
총사업비	759억 원
사업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기간	2012 ~ 2015년
사업 내용	산책로, 분수시설, 운동시설, 상업시설과의 연계 등
특징	수로와 중앙공원의 연계성과 시티타워 조망의 독보적 스카이라인

# V S

## SAN ANTONIO

###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위치	샌안토니오시 벡스터 카운티
규모	6.4km
총사업비	4,099억 원
사업 시행사	샌안토니오시, 벡스터 카운티, 미육군공병, SARA
개장	2009년, 2013년 단계적 개장
사업 내용	The Mission Reach - 홍수방재, 친환경적 하천복원 The Museum Reach -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
특징	기존 도시의 재생과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정부와 민간협업체, 전문가의 협업과 다양한 재원을 통한 장기 프로젝트



청라 커널웨이는 인공수로로 조성되었지만 ‘인공’에 대한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능한 한 자연 수로로 보이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줄이고 석축을 이용했으며, 청라의 보석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구간별로 조형물의 색채 계획도 루비존, 사파이어존, 에메랄드존 등의 상징색을 적용했다. 수로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작은 보행교와 조형 벤치 등을 곳곳에 배치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



### ‘리틀 베네치아’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상습적인 범람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청라 커널웨이와는 차이가 있다. 도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기능이 우선시되다 보니 청라와는 달리 많은 수목을 심어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청라 커널웨이는 호수공원의 시티타워 조망이 우선되기 때문에 과도한 수목 조성은 오히려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현재 관광문화 자원으로 그 기능이 바뀌어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24km 이상 이어지는 리버워크의 그늘진 길을 따라 고급 호텔과 수백 개의 상점, 레스토랑, 그리고 피카소 작품과 서부 시대 기념품 등 온갖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모든 문화 활동과 역사체험 프로그램이 리버워크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명한 관광코스가 됐다(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다녀간 모습이 예능 프로그램 ‘이방인’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리버워크의 사례는 향후 진행 중인 청라 커널웨이의 개발 방향에 많은 교훈을 준다. 리버워크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켰다. 청라국제도시도 미래 문화 및 역사적 자원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인비저블’ 시티타워 청라의 랜드마크 예약

청라 커널웨이와 호수공원은 경관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확실히 보여준다. 청라 국제도시의 커널웨이 주변으로 중심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고 외곽으로 주거지가 계획되어 있다. 커널웨이 주변은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공공청사 등이 모여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번잡한 곳이다. 커널웨이가 집결하는 호수공원은 도시 내 핵심 경관거점으로 도시의 시·공간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한가운데에 시티타워가 건립되고 있는데, 약 450m 규모의 초고층 타워로 세계에서 셋째로 높은 전망대가 될 것이다. 또 국내 최초 ‘인비저블(invisible)’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타워가 사라지는 효과를 연출하게 된다. 야간에는 전면에 미디어파사드를 적용해 청라만의 독특한 야간 경관을 형성한다.





## 드라마 시티 인천



사기꾼에서 검사가 된 주인공, 세상을 바꾸다. 드라마 '스위치-세상을 바꿔라'가 안방극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드라마는 중구청과 강화군청의 제작, 로케이션 지원으로 영종도와 차이나타운, 강화도 교동 대룡시장, 해든뮤지움 등 인천 일대에서 촬영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씨제스프로덕션, 류창현 포토디렉터

드라마 '스위치-세상을 바꿔라'가 브라운관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위치'는 사기꾼에서 검사가 된 주인공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을 담은 유쾌한 활극이다. 이 드라마는 한류 스타 장근석의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관심을 모았다. 그의 1인 2역 연기 변신과 파트너 한예리와의 케미도 방송을 차지게 했다.

첫 방영부터 예상은 들어맞았다. 검사 백준수(장근석 분)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그 자리를 사기꾼 사도찬(장근석 분)이 차지하는 과정이 속도감 있게 그려지며 몰입도를 높였다. 드라마는 외교관 마약 사건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사회 부조리를 꼬집는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검사와 사기꾼이 의기투합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가슴을 뻥 뚫리게 한다.

### scene #1

강화고등학교

④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20  
⑤ 강화고등학교 ganghwahs.icehs.kr

#### 고시생, 시험을 포기하다

지난 3월, 강화고등학교. 드라마 '스위치'의 크랭크 인 현장. 아직 봄을 느끼기엔 차가운 기운이 감돌지만 촬영장은 한류 스타 장근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과 취재진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강화고등학교는 사도찬이 사법고시를 보는 시험장으로 등장하며 촬영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모범적인 고시생이었던 주인공이 시험을 포기하기로 마음먹는 장면이 펼쳐졌다.



### scene #2

영종도

⑥ 중구청 문화관 www.icj.go.kr/tour

#### 대통령 행렬을 멈추고 마약을 찾아라

중구 중산동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사도찬과 오하라(한예리 분)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의 행렬을 막아섰다. 외교 행랑을 통해 마약이 반입될 거라는 정보를 접수하고 사건 해결에 나선 것. 모든 것을 내건 수사. 주인공들은 마약이 발견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만, 결국 대량의 마약을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수사를 마친다. 이날 촬영에는 드론과 수 십 대의 차량이 동원돼 현장감을 높였다. 또 도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무전으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며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



④주소 ⑥홈페이지



scene

#3

차이나타운

㉠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12  
㉡ 차이나타운 www.chinatown.or.kr



#### 오토바이 탄 검사, 차이나타운에 등장

배우 장근석이 차이나타운에 뒀다. 사도찬은 범인을 붙잡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인물을 찾기 위해 차이나타운으로 향했다.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한 그는 수사를 위해 차이나타운 골목을 누비며 극에 긴장감을 높였다. 이날 중구청과 상인들은 야간까지 조명을 밝히며 밤샘 촬영을 도왔다는 후문이다.

scene

#4

해든뮤지움

㉠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101번길 44  
㉡ 해든뮤지움 www.haedenmuseum.com



#### 고요한 갤러리, 숨 막히는 대결

드라마에서 필 갤러리로 등장하는 곳은 강화도에 있는 '해든뮤지움'이다. 미술계의 큰손을 가장해 갤러리의 관장으로 있는 금태웅(정웅인 분)은 사실상 검은 조직의 우두머리. 그와 주인공의 불꽃 튀는 대결이 해든뮤지움을 중심으로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제작진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샤갈-신비로운 색채의 미술사' 전을 열고 있는 갤러리의 상황을 고려해, 휴관일인 월요일에 촬영을 진행했다. 강화의 아름다운 자연 안에 있는 해든뮤지움은 피카소, 샤갈, 아르망, 백남준 등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건축으로 2013년 한국건축가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건축 베스트 7'에 선정되기도 했다.

scene

#5

교동대룡시장

㉠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 교동면사무소 930-4500



#### 시장 골목에 펼쳐진 어린 시절

사도찬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장면은 강화도 교동 대룡시장에서 촬영했다. 6·25 전쟁 이후 형성된 대룡시장은 아직 철조망 너머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때의 시간은 지금도 일상으로 흐른다. 대룡시장에서 찍은 회상 장면은 주인공과 상대방의 악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동산약방을 중심으로 시장 골목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 드라마에서 현실로, 관광 인천

인천은 드라마 촬영에 최적화된 도시다. 섬과 바다, 공항과 항구, 화려한 빌딩 숲과 오래된 골목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국제공항에서 단 십오 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도 장점이다. 중구청과 강화군이 로케이션 및 제작 지원으로 인천 알리기에 나섰다. 한류 드라마를 통한 해외 관광객 유입은 2007년 4.8%에서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2016년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17%로 성장했다. 이러한 뒷받침이 훗날 브라운관을 넘어 인천으로 관광객을 흡인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치' 제작진은 향후 군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강화도 스토리워크, 옛 조양방직 터, 자유공원, 개항장 거리 등에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의 고유한 관광 콘텐츠가 스며든 영상물이 인천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으리라 기대한다.



드라마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방송 : 3.28~5.17(매주 수·목 밤 10시)  
연출 : 남태진  
출연 : 장근석, 한예리, 정웅인 등





어서 오시겨~

강화도는  
처음이지?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은 날, 인천에 살고 있는 클로드 드롤렛(Claude Drolet, 50) 씨 가족이 강화도 나들이에 나섰다. 클로드 씨는 강화도가 처음이다. 늘 촘촘한 여행계획을 세웠던 그가 이번엔 특별한 여행계획도, 지도 한 장도 준비하지 않았다. 오로지 '타시겨 버스' 하나만 믿고 가족 여행을 감행했다. 순환형 투어버스인 '타시겨 버스'를 타는 순간, 운전대를 잡는 수고로움이 사라지고 알짜 여행이 시작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 '타시겨 버스'로 시작된 편안한 강화도 여행



## 타시겨 버스

[운행 노선]



오늘의  
강화도  
관광도시

캐나다 출신 클로드 씨는 현재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으며, 인천시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 중이다. 한국에 온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가족과 강화도를 여행하기는 처음이다. 오전 10시 20분, 널찍한 Gapgoddong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아내 박진우(46) 씨, 아들 콜비 드롤렛(Colby Drolet, 9) 군과 함께 '타시겨 버스'에 올랐다. '타시겨'는 강화도 사투리로 '타세요'라는 뜻이다. 버스에 오르자, 버스 기사가 "어서 오시겨~"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지난 3월 23일 운행을 시작한 '타시겨 버스'는 Gapgoddong, 풍물시장, 중앙시장(관광플랫폼), 화문석문화관, 평화전망대, 강화역사박물관 등을 순환하는 투어버스다. 40분 간격으로 운행돼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다 언제든지 재승차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1일 8,000원으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으며, 타시겨 버스 자유이용권 소지자는 강화군 웰컴센터인 강화관광플랫폼에서 지역 화폐인 강화사랑상품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 운영하는 유료관광지의 입장료 50% 할인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티켓 구매 시 당일 군내 버스 전체 노선의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군내 숙박 체류 확인 시 다음 날도 타시겨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타시겨 버스 자유이용권을 착용하는 모습





## 클론씨 가족의 강화 여행

AM 10:33 중앙시장 하차



### 강화관광플랫폼

강화읍 중앙시장 B동, 3층에 위치한 ‘강화관광플랫폼’은 강화도의 모든 관광 정보 안내와 숙박 예약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다. 강화 역사문화를 미디어월과 VR(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고, 고려시대 수도였던 강화의 분위기를 살린 고려 의복 체험도 가능하다. 색색의 고운 의상 외에도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갖춰져 있어 고려시대 분위기를 한껏 느껴볼 수 있다.



VR로 강화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고려 의상을 갖춰 입고 가족사진까지 찍으니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여행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용흥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강화관광플랫폼을 나와 향한 곳은 용흥궁(龍興宮). 조선 25대 왕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인 열아홉 살 때까지 살던 집이다. 좁은 골목 안에 대문을 세우고 행랑채를 두고 있는 용흥궁은 소박하지만 왕권에 걸맞은 기품이 깃들여 있다. 원래는 초가집이었으나, 강화도령이 왕이 된 후인 1853년 강화유수가 현재의 세 칸짜리 기와집으로 다시 지었다고 한다. 용흥궁 뒤편의 계단을 오르면 만나게 되는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1900년에 지어진 이 성당은 서양 건축 양식을 한국적으로 되살려 낸 이색적인 공간으로 강화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냥 한국 건축물이구나 여겨지는데, 성당 내부가 온통 서양식이더라고요. 동서양의 만남이 이렇게 조화로우 수 있을까 하고 감탄했습니다.



### 소창체험관

강화도는 1970년대까지 60여 개의 크고 작은 직물공장이 인조견, 넥타이, 커튼직물, 특수 면직물을 생산했다. 지난해 강화군은 과거 화려했던 강화의 직물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소창체험관’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국내 자본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조양방직 사진과 1,200명의 직공들이 근무하던 심도직물의 옛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또 관광객들을 위해 나만의 강화 소창 만들기, 1938년 건축된 한옥에서 전통차 체험, 화문석 체험, 직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소창(천)에 스탬프를 찍어 아름다운 문양을 새기는 활동이 재미있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손수건을 만들 수 있어서 기뻐요.



### 젓국갈비

새우젓 주산지로 유명한 강화도에는 새우젓과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한 ‘젓국갈비’라는 음식이 있다. 젓국갈비는 고려의 제23대 왕 고종이 몽골군 침입으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을 때, 백성들이 고종에게 진상한 음식이었다. 강화에서 귀한 특산물을 모아서 왕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젓국갈비의 시초라고 한다. 새우젓과 돼지고기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 미나리·양파·호박 등 각종 채소를 넣고 팔팔 끓여낸 젓국갈비는 새우젓 말고는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 국물 맛이 깔끔하고 담백하다. 여기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 칼칼함을 더했다.



저도 인천 사람인데 ‘젓국갈비’는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갈비는 그냥 구워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골로 먹으니 새롭네요.





PM 1:51 평화전망대 하차



### 평화전망대

고개만 조금 내밀어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화도다. 짧은 물길 하나 건너면 바로 북녘 땅을 만날 수 있는 평화전망대. 북한 땅과 가장 근접한 거리는 1.8km밖에 되지 않아 멀리 송악산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옥의 전망대에 설치된 고성능 관광용 망원경에 눈을 땀다. 북녘의 산하가 더 가깝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눈독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도 보인다. 농번기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손에 잡힐 듯, 북한의 일상이 그대로 펼쳐졌다.



평화전망대에서 건너갈 수 없는 지역을 바라보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두 나라 사이를 가르는 이 지역이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거죠. 흥미로운 동시에 무척 슬픈 일이기도 하구요.

PM 2:49 강화역사박물관 하차



### 강화지석묘(고인돌) 및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지석묘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북방식 지석묘로,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높이 1.5m, 길이 6.4m, 무게 75톤으로 남한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인 고인돌이다. 지석묘 앞에 위치한 강화역사박물관은 강화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고 있다.



고인돌은 책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어요. 아빠가 강화도로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고인돌을 꼭 보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 정말 어마어마해요.



PM 4:37 버스터미널(풍물시장) 하차



### 풍물시장

강화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인 풍물시장. 이곳에는 강화만의 건강한 먹거리와 특산품이 즐비하다. 보랏빛 동그란 순무를 듬성듬성 썰어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은 이곳만의 특별한 풍경이다. 또 온갖 해산물과 밴댕이젓, 새우젓, 게장은 풍물시장에서 최고 인기다. 강화 특산품인 화문석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화문석으로 만든 다양한 공예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캐나다 지인에게 줄 선물로 몽땅 가져가고 싶네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숨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PM 5:25 갑곶돈대 하차



### 갑곶돈대, 전쟁박물관

강화대교를 건너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갑곶돈대는 1679년(숙종) 5월에 완성된 53돈대 중 하나다. 갑곶돈대 내에 위치한 전쟁박물관에는 역사의 고비마다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강화의 호국정신을 담은 다양한 전쟁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미국 역사는 200년이 갓 넘었는데, 강화도에는 몇 천 년이 지난 유물과 유산이 정말 많잖아요. 오늘 강화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판이 좀 더 상세하게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엔 외국 친구들에게도 강화를 소개해주고 싶거든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강화도는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요, 전통이다. 수려한 자연경관까지 품고 있는 강화도. 어디부터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일단 ‘타시겨 버스’를 타보자. “운전이 귀찮다면, 내비게이션 목소리에 싫증이 났다면, 주차가 걱정된다면, 버스 창에 기대 낭만적인 여행을 꿈꾼다면, 만차 되기 전에 얼른 타시겨~!”



## 유물 속 인천의 풍경을 디자인합니다

조유미

사진 김보섭 | 글 유동현



월간지는 그달의 분위기를 담는다. 구태의연하지만 5월호 기획은 ‘어린이’ ‘가정’ ‘효’ 등의 주제에서 맴돌게 된다. 지난 3월, 김보섭 사진가가 취재 대상 한 명을 추천했다. 송월동 동화마을의 인형극 카페 주인장이었다. 그는 직접 인형들을 만들고 기획해서 카페 내 간이 무대에서 공연한다. 취재하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한 달 뒤로 미뤘다. ‘어린이’ 주제의 5월호로는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껴 둔 것이었다. 임박해서 일이 터졌다. 그새 마음이 변했는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난감했다. 이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불현듯 책상에 놓인 책 한 권에 눈길이 갔다. 인천시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드로잉 북 ‘인천을 그리다’였다. 밑그림을 따라 지역과 공간을 색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천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이다. 그 밑그림을 그린 이의 ‘얼굴’이 퍼뜩 떠올랐다. 조유미(35) 씨는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직원이다. 전시 디자인, 도록 디자인 등을 하는 디자이너다. 그는 강원도 원주 출신이다. 대학에서 불교시각디자인, 대학원에서는 미술사학 불교회화를 전공한 후 인천시립박물관에 들어가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올해로 6년째다.

시립박물관은 매년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전시회를 수차례 연다. 현대인들은 박물관이 정성껏 마련한 ‘과거’ 앞에 쉽게 서지 못한다. 공들여 기획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유물들을 철수해야 한다. 이때 남는 것은 전시 도록(圖錄)뿐이다. 도록에는 전시 기획 의도와 전시품 그리고 해설 등이 실려 있다. 직접 전시장에 온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그것만 꼼꼼히 봐도 유물 ‘감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공간 전시와는 또 다른 형태의 ‘지상(紙上) 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유미 씨는 디자이너이지만 학에서 못지않게 유물을 연구하고 공부한다. 이렇게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그는 얼마 전 실제로 전시회를 기획하고 진행할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83일간 개최한 특별전 ‘근대가 찍어 낸 인천풍경’이다. 사진, 엽서, 광고지, 상표, 소설, 잡지 등 근대 인쇄 이미지 관련 자료 320여 점을 전시해 근대 인쇄 이미지에 나타난 인천의 풍경과 의미를 보여줬다. 본격적으로 학예 업무에 데뷔한 셈인데 ‘흥행’에도 성공했다는 평이다. 도록이 전시회의 결과물이라면 전시 포스터는 전시를 미리 알리는 홍보물이다. 도록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이다. 박물관 1층 복도에는 그동안 그가 디자인한 포스터 작품들이 액자 작업돼 걸려 있다.

신포동에 있는 팻알 카페에서 ‘인천’ 포장지를 접한 적이 있다. 보는 순간 ‘이거 관광상품으로 그만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 씨의 작품이다. 그는 개화기 발행 책 중에서 ‘인천’이란 글자만 골라서 ‘1900년대 모던 인천화(畵)’ 도록의 간지를 디자인했다. 이것을 본 팻알에서 상품화한 것이다. 그는 박물관 교육 참가자들에게 증명하는 작은 노트와 클리어 파일 등도 유물에서 힌트를 얻어 직접 디자인해 제작하곤 한다. 지난 4월 자유공원 벚꽃 축제 기간에 팻알에 간 손님들은 예쁜 종이컵으로 커피를 마셨다. ‘벚꽃엔딩’으로 기획된 종이컵 위에는 펜으로 그린 팻알 건물(등록 문화재 제568호) 위에 분홍색 벚꽃 잎이 하늘하늘 떨어졌다. 그의 작품이다.

앞서 언급한 ‘인천을 그리다’ 책은 배포하자마자 품귀 현상을 빚었다. 히트작이다. 조유미 씨가 그린 그림 1백여 컷은 7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내’가 추억의 장소들을 그리며 따라간다. ‘아이’ ‘가정’ 그리고 ‘효’가 포함된 이 드로잉북의 밑그림을 그린 조유미 씨는 5월호 ‘얼굴’로 결코 빠지지 않는다.



## CULTURECALENDAR

## 05

## 01

2018 부평키즈페스티벌  
기획공연 ‘봉장취’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5월 3일까지 공연  
1일/ 오후 2시  
2, 3일/ 오전 11시  
전석 2만원  
☎ 500-2000



## 04

##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5월 5일까지 공연  
4일/ 오후 7시 30분  
5일/ 오후 3시, 7시  
VIP석 7만7,000원,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 1566-6551

## 가족 뮤지컬 ‘피터팬’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0시 15분, 11시 20분  
일반 1만원, 단체 6,000원  
☎ 02-387-9411

부평키즈페스티벌 기획공연  
‘애니메이션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500-2000

## 05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어린이를 위한 가족 뮤지컬  
‘말괄량이 삐삐’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051

## 09

## 뮤지컬 ‘충치마녀와 시러공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월 11일까지 공연  
오전 9시 30분, 11시 10분  
전석 1만원  
☎ 1588-2341

## 10

어린이 과학 뮤지컬  
‘아인슈타인의 과학여행’

학산소극장 4층  
~5월 12일까지 공연  
10, 11일/ 오전 10시, 11시(단체)  
12일/ 오후 4시(개인)  
전석 1만원(남구 주민 및 단체 50%,  
아빠 무료)  
☎ 866-3994

## 가족 뮤지컬 ‘어린이 넌센스’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5월 11일까지 공연  
오전 10시, 11시 30분  
전석 2만원  
☎ 460-0560

## 1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3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창작 가족극  
‘모두의 비밀 친구들’

부평문화사랑방  
오전 10시  
전석 5,000원  
☎ 505-5995

## 11

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인천시립무용단  
‘우리 춤의 향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742

## 12

이미자 60주년 기념  
호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VIP석 9만9,000원,  
R석 8만8,000원,  
S석 7만7,000원  
☎ 1566-6551,  
010-5322-6304

미추홀 빅밴드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2만원  
☎ 010-4046-4762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가족 타악극 ‘유쾌한 드러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051

## 뮤지컬 ‘넌센스’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 460-0560

## 13

선데이 콘서트-  
오유경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 15

제26회 새얼 국악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885-3611

## 16

커피콘서트III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마임음악극  
‘지니스토리 플러스’

부평문화사랑방  
오전 10시  
전석 6,000원  
☎ 505-5995

## 17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기념 ‘거미 콘서트’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전석 선착순 무료  
(5월 3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www.ilec.go.kr 접수)  
☎ 899-1517

스타인웨이 위너콘서트  
인 코리아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3만원  
☎ 289-4275



## 18

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인천시립교향악단 ‘챔버홀릭’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742

## 18

인천시립무용단 춤추는 도시  
인천 10th Anniversary  
‘개막 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전석 1만원  
☎ 1588-2341

## 19

## 백다방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월 20일까지 공연  
19일/ 오후 7시  
20일/ 오후 5시  
전석 5만원  
☎ 02-3663-1728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예술쇼 ‘박경훈의 피아노 풍류’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051

## 20

## 태진아 콘서트-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9만9,000원, S석 8만8,000원,  
A석 7만7,000원  
☎ 02-6205-3403, 010-3795-4057

## 23

인천시립무용단 춤추는 도시  
인천 10th Anniversary  
‘무.대열전(舞大熱戰)-  
무용과 대학 페스티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무료  
☎ 1588-2341

## 24

## 가족뮤지컬 ‘아기공룡 크로롱’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0시 20분  
전석 6,000원  
☎ 1666-1318

## 25

인천시립무용단 춤추는 도시  
인천 10th Anniversary  
‘IMDT CURATION’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1만원  
☎ 1588-2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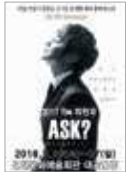
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인천시립합창단  
뮤지컬 ‘하이라이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20-2742

## 26

## 최현우 ask? &amp; answer!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5월 27일까지 공연  
26일/ 오후 2시, 6시  
27일/ 오후 1시, 5시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 1599-9354

인천시립무용단 춤추는 도시  
인천 10th Anniversary  
릴레이 댄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전석 무료  
☎ 438-7774

## 가족 뮤지컬 ‘엄마 까투리’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5월 27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 1577-4868

2018 우리 가족-  
토요일N클래식 시리즈 I  
‘해천추범(海天秋帆)-  
표류하는 돛단배’

부평문화사랑방  
오전 10시  
전석 6,000원  
☎ 505-5995

## 29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 500-2000

## 30

청소년 브런치 콘서트 -  
베이스 함석헌과 함께하는  
브라보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5,000원  
☎ 500-2000

마티네 콘서트 마실  
‘만다드효성 킨텍’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3,000원  
☎ 460-0560

## 31

## 스칼라오페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1만원  
☎ 888-9911

브런치 콘서트 양희경과 함께  
하는 ‘달콤한 클래식’-  
청춘, 내 소신적에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5,000원  
☎ 500-2000

교육 뮤지컬 ‘쓱쓱쓱 남남남  
건강하게 먹어요’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6월 1일까지 공연  
오전 10시, 11시  
전석 무료(선착순 사전 신청  
어린이집만 관람 가능)  
☎ 466-2983

## 이달의 展

## 제13회 최애경 개인전

4월 28일~5월 4일  
갤러리 지오

## bondadoso(선량한), 사람이 좋다

5월 1일~10일  
갤러리 나무

## 제15회 바젤아카데미회원전

5월 1일~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제19회 그림벗전

5월 1일~10일  
갤러리 다솜

## 제26회 인천남구미술협회

구민의 날 기념 특별기획전  
5월 1일~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류시완 개인전

5월 5일~11일  
갤러리 지오

## ‘Landscape in mind’ 오현주 제12회 개인전

5월 9일~15일  
선광문화재단 미술관

## 박성배 개인전

5월 12일~18일  
갤러리 지오

## 바느질놀이 자수전

5월 15일~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제27회 인천서예술연구회전

5월 15일~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회고)전  
5월 15일~29일  
갤러리 나무, 다솜

## 서권수 최명자 부부전

5월 19일~25일  
갤러리 지오

## 아름다운 풍경 사진 초대전

5월 22일~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제2회 클림포토 하모니 그룹전

5월 22일~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 민선홍 개인전

5월 26일~6월 1일  
갤러리 지오





## 짙어진 녹음, 푸른 하늘 즐거움 가득 5월의 축제

계절의 여왕 5월이 축제를 한 아름 안고 돌아왔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인천의 축제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어린이날 행사부터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화도진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와 흥겨운 인천의 축제들을 소개합니다.

###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다 2018 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

다양한 생물을 보전하고 연구하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생물 사랑 어린이 대축제를 엽니다.  
즐거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  
미야방지 지문등록 서비스를 운영하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문의 [www.nibr.go.kr](http://www.nibr.go.kr) ☎ 590-7461  
일시 5월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립생물자원관  
티켓 무료



### 복적복적 킥킥 예술과 놀자! 2018 부평키즈페스티벌

부평구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부평키즈페스티벌 부키프(BUKIF)는 올해  
5년째를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베틀시장,  
글짓기 대회 등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부평키즈페스티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www.bpcf.or.kr](http://www.bpcf.or.kr) ☎ 500-2000  
일시 5월 1~5일  
장소 부평아트센터 일원  
티켓 무료(일부 체험 행사 유료)

### 인천 최초 축제 화도진 축제

인천 최초의 축제로 기록된 화도진 축제가 5월 18일 막을 올립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영대장 축성 행렬로 화려하게 시작하며  
축하 공연과 체험 행사, 구민 노래 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집  
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화도진 축제의 흥겨움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www.icdonggu.go.kr](http://www.icdonggu.go.kr) ☎ 770-6920  
일시 5월 18~19일  
장소 동인천역 북광장, 화도진공원 일원  
티켓 무료



### 어린이가 웃으면 미래가 웃어요 2018년 제14회 어린이주간 및 제96회 어린이날 행사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올해로 96회를 맞았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과 마술쇼, 민속놀이와 캘리그라피까지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의 시 이동청소년과 ☎ 440-2858  
일시 5월 5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티켓 무료



### 10주년 맞이한 인천의 춤 축제 춤추는 도시 인천

춤꾼과 관객이 하나가 되는 춤추는 도시 인천은 '항상 곁에 있는 춤'이라는  
슬로건 아래 춤이 가지는 다양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춤을  
선도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수준 높은 공연뿐만 아니라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릴레이댄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춤이 축제 기간에 펼쳐집니다.  
춤과 예술이 가득한 이번 축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http://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5월 18~26일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 소, 야외 공연장  
티켓 무료 및 유료(홈페이지 참조)





# NEWS BRIEF

## 원도심 빈 교실에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원도심 학교의 빈 교실이 마을공동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우리 시는 지난달 10일 교육청, 신한은행 인천본부와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도심 학교의 유휴공간을 마을 주민의 소통과 배움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3개 기관은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3~4개

원도심 학교의 빈 교실이나 강당을 리모델링해 마을공방, 카페, 다목적 전시실 등 마을공동체 어울터로 만들 계획이다. 어울터에서는 학생들의 방과 후 취미활동, 교과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지역공동체과 ☎ 440-4118

## 서운산단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우리 시는 계양구 서운동 일원에 조성되는 서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을 4월 23일자로 변경 승인하고 고시했다. 이번 산업단지계획변경은 이 산업단지에 새롭게 조성될 공원의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공원 내 휴게공간 및 여가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이용객의 활동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재 서운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를 100% 분양했으며, 71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차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는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조성 공정률은 84%로 포장 및 조경 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개발계획과 ☎ 440-4673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육성

우리 시는 인천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2018년 청년창업농 12명과 일반 후계농 7명을 최종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과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12명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 농지 구입 및 임차 등 정책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금을 대출해준다. 또 일반 후계농으로 선정된 7명에게는 정책자금 최대 3억 원을 대출해주며, 대출금리는 연리 2%(고정금리)이다.

문의 : 시 농축산유통과 ☎ 440-4362

## 취약계층 주민세 면제…전국 최초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전액 감면 대상은 조례에 따라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 보훈대상자, 의사상자, 차상위계층 등 6만 7,000명으로 3년간 주민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도 약 5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시 주민세는 연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문의 : 시 세정담당관실 ☎ 440-1623

## 신교통수단 바이모달트램 청라서 국내 첫 운행

굴절버스 형태의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이 국내 처음으로 청라국제도시에서 상용 운행된다. 인천교통공사는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가정역까지 약 10km 구간의 GRT(유도고속차량) 노선에 바이모달트램 4대를 지난달 21일 투입했다. 지난 2월 개통한 이 노선은 현재 701번과 702번 저장버스 14대가 달리고 있다. 이번 바이모달트램 추가 투입으로 평일 운행횟수는 79회에서 99회로 늘어나고 막차시간은 약 5분 연장돼 0시 30분까지다. 요금은 지선버스 요금과 같이 교통카드 950원, 현금 1,000원으로 일반 시내버스보다 싸다.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문의 : 인천교통공사 ☎ 569-6044



## 국내 최초 대불호텔, 전시관으로 재단장

국내 최초 호텔인 대불호텔이 ‘중구 생활사 전시관’으로 재단장돼 지난 4월 6일 개관했다. 지난 1978년 철거된 이후 건물터만 남아있었으나, 2013년 당시 토지 소유주인 김홍섭 중구청장 동생 홍빈씨가 토지를 기부해 중구가 문화재청과 근대건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예전 건물 외관을 재현했다. 전시관은 연면적 628.82㎡의 지상 3층 규모로 1관 대불호텔 전시관과 2관 1960~1970년 생활사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문의 : 중구청 ☎ 760-6473



## 영종·용유 택시 사업자 통행료 지원



우리 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한다. 이는 인천시 택시운송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운송 사업자가 빈 차로 운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하루 1회 전액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인천대교 등을 통해 빈 차로 귀로할

경우 본인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용객 역시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문의 : 시 택시화물과 ☎ 440-3803

##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보건의료분야 MOU 체결

우리 시는 지난 4월 1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시장 Bauyizhan Baibek)와 보건의료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몇 년간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중국, 러시아, 미국에 이어 넷째로 많은 국가다. 알마티는 이 나라의 옛 수도로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TF)가 열리는 주요 도시지만, 시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시는 알마티시 보건당국과 의료인력·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교류를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39





## 원도심 곳곳, 디자인 마을로 탈바꿈



우리 시는 강화군 내가면을 비롯한 원도심 3곳을 대상으로 하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지난 4월까지 마무리했다. 스토리텔링과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마을 분위기를 바꾸는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남동구 구월1동, 계양구 계산1동,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로 범죄 예방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단장했다.

구월1동은 ‘달빛마을’이라는 주제로 골목길을 정비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성안심마을’로 디자인했다. 또 계산1동은 600년 넘은 보호수(保護樹) 주변을 ‘쌈지 숲’으로, 고천리는 내가저수지 둘레길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했다.

문의 시 도시경관과 ☎ 440-4794

## 안부전화 안심폰 3,400대 교체

우리 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안부전화 사랑의 안심폰’을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400대 교체한다.

시는 올해 구형 안심폰 가운데 고장이 나거나 노후화로 성능이 떨어진 구형 안심폰 1,000대를 우선 교체한다. 한편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한 방안으로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과 화상통화가 가능한 안심폰 통화를 하며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사업이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 440-2812

## ‘어르신 소비생활 지킴이’ 발대식

고령층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우리 시가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10일 ‘어르신 소비생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지킴이단 110명을 위촉했다. 65세 이상 노인인 이들은 지역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최근 발생하는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등 각종 소비자 피해와 예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기관과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문의 : 시 일자리경제과 ☎ 440-4203

## 미세먼지 측정소 15곳→23곳 확대

우리 시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내 대기측정소를 늘리고 어린이 10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두살에서 여섯살까지 어린이 10만3,000여 명에게 1인당 5장씩 식약청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현재 15곳에 설치된 대기 측정소를 2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측정소에서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 측정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치를 시 환경정보 공개시스템과 시내 6개 대기환경 전광판을 통해 알리게 된다.

문의 : 시 보건환경연구원 ☎ 440-5547

## ‘인천 토탈 미용 아카데미’ 운영·지원 협약 체결



우리 시가 지난 4월 23일 사단법인 세계뷰티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세계뷰티문화산업연구학회와 ‘인천 토탈 미용 아카데미’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용 교육테마 관광상품인 ‘인천 토탈 미용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시와 세계뷰티문화산업연구학회는 ▲일반 및 전문 미용인이 원하는 맞춤형 미용 교육 ▲새로운 트렌드와 노하우 등 뷰티 선진화를 위한 관련자료 및 정보, 네트워킹의 교류 협력 ▲상호 뷰티 아카데미 업무의 성공적인 진행 ▲외국인 관광객의 인천 숙박 및 인천 관광을 위해 연계·협력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위생안전과 ☎ 440-3633

## 제17차 세계기상기구 농업기상위원회 총회 개최



제17차 세계기상기구(WMO) 농업기상위원회(CAgM) 총회가 60여 회원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등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기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농업기상 정책 활용, 농업기상 발전을 통한 식량, 자원 및 환경 문제 대처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문의 : 시 녹색기후과 ☎ 440-8592

## 공항 소음 지역에 예산 지원 조례 제정

우리 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4월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담당 군·구뿐 아니라, 시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2년까지 5년간 27억8,300만 원의 보조금을 마련,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서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km<sup>2</sup>,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km<sup>2</sup>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5,380가구다.

문의 : 시 항공과 ☎ 440-4802

##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

우리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의 주거비율이 절반(54.3%)이 넘어감에 따라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체 생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구·동구, 4월에는 남구를 방문

하고 입주민 21명을 대상으로 22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연수구는 4월과 9월, 남동구·부평구는 5월과 10월, 중구는 6월, 동구는 7월, 계양구는 6월과 11월에 방문하여 상·하반기 2회씩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신청은 해당 구청 건축과에 전화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문의 : 시 건축계획과 ☎ 440-4747

## 인천서 3년간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최



우리 시와 현대자동차,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는 지난 4월 10일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대회 성공

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대회는 올해부터 3년간 인천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제2회 대회는 5월 24~27일 송도 잭니클라우스 클럽에서 개최된다. 총상금은 15억 원(우승상금 3억 원)이며, 4만 명 이상 갤러리들이 관람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마이스산업과 ☎ 440-1523

## 천주교 최초 영세자 이승훈 묘역에 역사공원 조성

국내 천주교 최초 영세자로 알려진 이승훈(1756~1801)의 묘역 일대를 천주교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19일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재단과 함께 이승훈 묘역이 있는 남동구 장수동 산 135 일대 4만5,831m<sup>2</sup>를 ‘이승훈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승훈은 1784년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아 국내 천주교 최초의 영세자가 됐으며, 귀국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해 주다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문의 : 시 문화재과 ☎ 440-4482







IFEZ NEWS

송도국제도시 세계 최고 ‘바이오허브’로 도약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 11일 송도컨벤시아 프 리미어볼룸에서 바이오 관련 기업·연구소·협회, 대학과 협약을 맺고 송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 성을 선포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에서 송도 글로 벌 바이오 허브 단지 조성, 기업 유치, 산학연 협 력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송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 성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연구소가 입주 해 있는 송도 4·5·7공구와 연계해 송도 11공구 내 99만㎡를 바이오 허브로 확대 조성할 계획 이다. 또 ‘가천대 길병원 브레인 밸리’ ‘세브란스 병원’ 등 송도에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고, 바이 오 공정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바이오기업·연구소·협회, 대학,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송도 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만드는 데 힘을 합치 기로 했다.

IFEZ 웹사이트 개편... 시민 참여 기능 강화



인천경제청은 IFEZ 웹사이트(www.ifez.go.kr) 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편의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개발계획과 보도자료 등의 콘텐츠를 SNS와 연계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댓글 달기·만족 도·좋아요 등의 참여 기능을 구현해 시민과 함 께하는 참여형 웹사이트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려받기와 검색 기능 등도 한층 편 리해질 예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신규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라호수공원 50인승 수상택시 운항

지난 4월 15일부터 청라호수공원에서 ‘50인승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했다. 수상택시 ‘뷰게 라’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오전 9시~오후 9시 에 운항한다. 청파나루 선착장에서 승선해 공원 전체를 순회, 다시 청파나루 선착장에 하선하 는 코스(3km)로 30분이 소요된다. 운임은 대인 6,000원, 소인 3,000원이다.

문의 : 청파나루선착장 매표소 ☎ 565-4609



‘공항 인접’ 영종하늘도시에 산단 조성

영종하늘도시에 항공·물류 산업에 특화된 산업 단지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영종하늘도시 에 국내 기업이 입주하고, 세제 감면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영종일 반산업단지’ 예정 지역은 중구 운북동 779·4번지 일원 50만8,000㎡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산단 조성지 인근에 주차대 수 100대 규모의 버스공영차고지도 조성한다. 중구 운북동 779의 4 일원 1만2,568㎡의 터에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리동, 정비동, 세차 동, CNG충전소 등을 갖춘 버스공영차고지를 만 들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 LH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구 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IMAGE NEWS



‘새싹라떼’  
올여름을  
책임집니다!

어디서 파는 음료지?  
유명한 바리스타가 만든  
메뉴인가?

이름만으로 신선하고 입맛을 돋우는,  
이 #특별한 라떼의 정체는?

01



여름 시즌 시그니처 메뉴 선정대회 1위  
‘새싹라떼’

녹차 파우더를 베이스로 활용,  
녹차 잎 연상시키는 이름!

#정신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 인천시청점에서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 #전국 장애인 카페들이  
참여한 대회에서 당당히 1위

02



인천에서 ‘새싹라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바로콜 예약 시스템
-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센터 운영
- ‘인천형 공감 복지’ 장애인 자세유지구 보급
- 무상 차량 지원 ‘장애인 가족 공감 여행’ 추진

장애인 카페 운영하는 인천시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 (2017~2018년)

#인천에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개점이  
운영 중이고, 수익금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03



‘We got  
everything’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공감 인천  
#‘We got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04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기 -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2018 인천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리 시는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매년 1회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기간 내에 불시에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5월 8일~18일  
문의 : 시 재난대응과 ㉠440-1850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우리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 등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재산기준, 위기사유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기준** : 월소득 384만1,000원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4인 기준)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방임, 가정폭력, 화재, 단전 등 위기사유  
**지원 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기타 지원  
**신청 문의** : 거주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전통문화 예절학교’

연수문화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 : 초등학생  
**교육 일시** : 6월 9일, 16일, 22일, 7월 7일 중 선택  
**교육 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참가비** : 무료  
**접수 기간** : 5월 1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  
(방문 접수/1인 3명까지 신청가능)  
**문의** : 연수문화원 ㉠821-6229



제6회 디아스포라영화제

2018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인천시 영상위원회 주관으로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일정** : 5월 18일~22일  
**행사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일대  
**홈페이지** : ㉡www.diaff.org  
**문의** : 디아스포라영화제 사무국 ㉠435-7172



5월 하품학교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에서는 전문해설가와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5월 하품학교를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시** : 5월 31일 오후 7시  
**행사 대상** : 인천 시민(성인)  
**신청 기간** : 5월 8일~25일  
**참가비** : 무료  
**신청 방법** : 전화 및 방문  
**문의** : 학산생활문화센터 ㉠866-3993

인천 도시 탐구생활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항 이후 인천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5월 26일 오전 10시~낮 12시(저학년), 오후 2시~4시 30분(고학년)  
**체험 대상** : 초등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각 2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기간** : 5월 21일 오전 10시~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 ㉡compact.incheon.go.kr에서 선착순 신청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850-6016, 6030

시정정보 맞춤형 MMS서비스 확대 운영

우리 시는 시정정보 새 소식을 문자로 전해드리는 MMS서비스를 비회원에게도 확대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 : 인천 시민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이용** : 무료  
**문의** : 시 정보화 담당관실 ㉠440-2326





‘국가자격증’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숲교육협회에서는 유아 숲지도사 양성을 위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유아와 자연을 사랑하고 숲에서 미래를 만들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수 시간 : 총 220시간(강의 190시간+교육실습 30시간)

2차 개강 : 5월 24일(화·목·토요일 수업)

모집 인원 : 40명(선착순)

교육비 : 180만 원(3회 분납 가능, 교재비, 상해보험 가입비, 실습비 포함)

접수 방법 : 메일접수(wald-edu@hanmail.net) 또는 방문접수(남동구 미래로 45 벤처빌딩 702호)

문의 : 한국숲교육협회 ☎439-8880



여름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연수문화원에서 여름학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와 수강료 등 자세한 사항은 연수문화포털을 참조 바랍니다.

교육 기간 : 6월 4일~8월 31일(3개월)

프로그램 : 시각, 공연, 전통, 인문 통합 예술 강좌 등 100여 개 진행

접수 기간 : 5월 1일~선착순 마감

장소 : 연수문화원(연수구 비류대로299 청학문화센터)

수강 신청 : 연수문화포털(call.yeonsu.go.kr) 접수 및 방문접수

문의 : 연수문화원 ☎821-6229

‘2018 가로수지킴이’ 모집

우리 시 가로수를 내 것처럼 아끼고 돌볼 가로수지킴이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 4월 18일~5월 4일

활동 기간 : 5월~12월

신청 자격 : 수목관리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

모집 인원 : 대상지별 3인 이상 10인 이하 공동체

문의 : 시 공원녹지과 ☎440-3664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 상담 및 심리치료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에서는 대인관계, 성격, 진로, 학습 등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담 대상 : 인천 시민

상담 일시 : 연중(공휴일 제외)

상담 비용 : 무료(심리검사지 비용 실비부담)

신청 및 문의 :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 ☎887-8458

‘우리도 예술가’ 5월 공연발표

학산생활문화센터에서는 우리도 예술가라는 제목으로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공연을 발표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공연 일시 : 5월 25일 오후 7시

관람 대상 : 인천 시민 (7세 이상)

참가비 : 무료

신청 방법 : 전화 및 방문

문의 : 학산생활문화센터 ☎866-3993

아이러브카네이션 어버이 축제

우리 시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아이러브카네이션 어버이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시 : 5월 8일 오전 11시~오후 5시

향새 장소 : 부평공원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4



**‘인천시 미디어’와 카톡 친구 맺고  
인천 귀염둥이들 분양발자!**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인천시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매월 카친들에게 인천시의 다양한 알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인천시미디어’와 친구가 된 모든 분께는 인천시 새 캐릭터인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 물범 친구들’ 이모티콘을 ‘분양’합니다.  
지금 바로 카톡 검색창에서 ‘인천시 미디어’를 검색하세요.

**인천 콘텐츠 발굴, ‘i-View’ 기자가 간다  
시 인터넷 신문 객원기자 위촉**

시 공식 인터넷 신문 ‘i-View’가 올해 더 힘차게 비상한다. 인터넷 신문 ‘i-View’는 객원기자 19명을 모집하고 지난 4월 10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i-View’ 객원기자들은 인천의 숨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인천시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취재 활동을 하게 된다.  
인터넷 신문 ‘i-View’는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소통형 매체다. 지난 2005년 발행을 시작해 현재 1288호(4월 26일 기준)를 제작했고 인천의 우수한 콘텐츠와 정보를 시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i-View’는 매주 2회(화·목요일) 발행하며, [www.eneews.incheon.go.kr](http://www.eneews.incheon.go.kr)에서 구독 신청하면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440-8302



## 아이는 행복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나눕니다.  
300만 인천 시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성장해 나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윤소미(여아)  
2017년 2월 9일생·남구

부모의 바람  
소미야, 건강하고, 바르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길~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네요. 아이들 키우기 좋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정은찬(남아)  
2017년 2월 7일생·남동구

부모의 바람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얼마 전 문화센터에  
갔더니, 아빠랑 온 아기는 저뿐이었어요.  
아빠 육아휴직이 권장되는 분위기 조성과  
지원을 바랍니다. 아빠강좌, 아빠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도 제공해주세요.



박성현(남아)  
2016년 9월 26일생·남동구

부모의 바람  
건강하고 씩씩해진 성현아, 많이 사랑해~  
매번 출산과 육아 지원정책이  
오락가락해서 불안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일회성이 아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 잠깐!!

우리 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해부터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중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

지원금액 : 월 13만 원

이용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자격 확정된 이후 매월 지급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873

### 아기와 함께 찍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나 아이의 귀엽고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아기 이름, 탄생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인천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바라는 내용 및 인천시에 바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메일(goodvoice@korea.kr)로 보내주시면 '굿모닝인천'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는 출생 후~24개월까지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 440-8304

## 브랜드, 가치를 만든다

### 프라이탁FREITAG

글 박혜란 시 브랜드담당관

‘어느 화창한 봄날’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무색했던 4월이었다. 끝날 줄 모르는 추위에 패딩을 채 벗지 못하고, 미세먼지 ‘나뽀’에 마스크를 늘 챙기며, 틈틈이 닦치는 황사와 강풍을 맞이하느라 벚꽃엔딩도 모른 채 지나갔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지나가 주면 고마울 4월의 어느 날에 갑자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재활용업체들이 스티로폼과 비닐 수거를 중지하고 일부업체는 페트병까지 수거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것이다. 나름 재활용 분리 배출을 착실히 해왔던 국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더 큰 불법이요 재앙이니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 지경에 되어서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환경과 ‘재활용recycling’ 그리고 우리의 대처.



이번 호에 소개할 브랜드는 1993년에 쓰레기를 멋지게 활용하여 재탄생시킨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 이야기다. 스위스 취리히 출신의 두 형제 마커스 프라이탁과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에게는 비가 자주 오는 취리히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비에 젖지 않을 튼튼한 가방이 필요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쓰레기장에 버려진 트럭용 천막 덮개를 발견하고 직감했다. 방수성이 탁월한 타폴린 소재와 천막 특유의 강렬한 색상을 가진 천막덮개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가방이라는 것을. 예상대로 프라이탁은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 빈티지한 감성과 유니크한 디자인 컷은 도저히 천막 덮개를 활용한 가방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됐고 제품력과 실용성 등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으며 유럽인 20명 중 한두 명은 꼭 착용할 정도로 보편화된 브랜드가 되었다.

프라이탁과 같이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전혀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링 upcycling이라 말한다. 업사이클링의 우리말 표현은 ‘새 활용’이다.\*

최근 국내의 한 중소기업체가 폐자동차 가죽시트를 이용한 배낭을 생산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등 새 활용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다. 쓰레기 대란을 맞이하여 생각해 본다. 과포장을 없애고 일회용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등 쓰레기를 줄이는 사전대책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활용하는 사후대책도 중요하다고. 어쩌면 재활용이 아닌 새 활용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 업사이클링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참고



# “너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글 유영이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서울 한복판 광화문 인근으로 평생 출퇴근하신 아버지는 ‘너는 서울에 가서 살라’고 말하곤 하셨다. 어릴 적부터 인천에서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인천은 스무 살이 되면 벗어날 도시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성인이 되어 성공적(?)으로 벗어난 나의 도시 인천은 스무 살 그 무렵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계신 곳,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다.

그랬던 내가 몇 년 전 인천에 돌아왔다. 오라고 한 이도 없었고, 돌아올 것이라 예상한 이도 없었기에, 모두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그러고는 말없이 웃는 내 앞에서 그들 스스로 답을 내렸다. “아 맞다, 너 인천 사람이지.”

인천 사람. 참 낯선 단어였다. 그동안 살아왔던 도시와 나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부끄럽게도 내 고향 인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대의 나는 1년 이상 한 곳에 거처하지 않았을 만큼 역마살을 자랑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활동을 즐기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나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밀라노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곳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기에, 이 땅을 떠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하니 사소한 문화 하나하나가 더욱 자세하게 보였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 다음으로 출신 지역을 이야기한다. 통일된 지 15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도시국가였던 그들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의 일부인 출신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즐겁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들은 나고 자란 도시와 가정의 문화를 통해 개인이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 성장해왔는지 매우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Come sei fatta?(How are you made?)’ 유학 시절, 나를 아껴준 교수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영문으로 번역하기도 쉽지 않은 이 말은, 풀어 말하면 어떠한 환경과 경험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냐는 물음이었다. 난생처음 받은 이상한 질문. 한국에서 온 호기심 많은 디자이너 유영이를 만든 요인이 무어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너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아직도 생생한 그날 교수와의 대화 이후, 나는 계속해서 그 답을 몇 번이고 정리해 보았다. 나에게 영향을 준 인연과 경험의 시간과 공간을 나열하며 교수가 던진 질문의 답을 점점 명확히 그려나갔다. 그리고 자연스레 인천으로 많은 것들이 귀결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쟁 후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도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인천의 커가 한 층씩 더해졌다. 그들의 시간 속 인천과 내가 나고 자란 시간이 쌓여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 과거의 시간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은 나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내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ade in Incheon. 결국, 먼 길을 돌아 나는 그날의 답을 이곳 인천에서 찾았다. ‘나’에 대한 탐구는 ‘나의 도시’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고, 나의 일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자리 잡았다. 도시가 갖는 문화는 분명, 한 개인의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는 데에 시간이 걸릴 뿐. 우리는 모두 지나온 시간과 공간 안에서 도시와 호흡하며 성장해왔다. 그 상호작용이 결국 도시의 문화를 형성하기에, 인천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도시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워갔으면 한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도시, 우리를 만들어 준 도시 인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건축이란… 작가가 정성껏 꾸민 것을 시간이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것” - 김종업

얼마 전 방문한 김종업건축박물관에서 만난 김종업 건축가가 쓴 글의 한 부분이다. 누군가의 정성이 깃든 작품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우리 도시 구석구석이, 각자의 분야에서 장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네 문화의 집합소가 아닌가 싶다.

##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사진 오인영 남구사지인연발 회장

800년 전, 거센 폭풍우가 불었다.  
암수 정답던 은행나무에게 닥친 이별.  
비바람에 뿌리째 뽑힌 수나무는  
북에서 남으로 흘러와 볼음도 끝자락에 뿌리를 내렸다.

섬마을 사람들은 썩지 않고 소생하는 질긴 모습에, 나무를 신으로 받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마을 사람들의 터전인 바닷길이 끊기기 전까지  
나무는 사람들의 기원祈願에 오랫동안 귀 기울였다.

은행나무 제단이 문을 닫자 목신木神의 자리에서 내려온 나무는  
그제야 북에 둔 암나무를 그리며 초연히 늘어갔다.  
할아버지가 된 나무는 지금도 북으로 전하려는 듯 꽃가루를 빙는다.  
북녘 고향, 할머니가 된 나무가 그때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며.

나이 : 800년 / 나무 높이 : 24m / 나무 둘레 : 8.96m  
특징 : 강화 볼음도 언덕에 있는 당산나무로, 민속적·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304호로 지정되었다.